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지난 18일 맛있는 반찬이 한가득 담긴 가방이 도암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30가구에 배달되었다. 강진군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

“맛있는 반찬에 사랑까지 담았어요”

강진군 도암면 거주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반찬 지원

체는 열무김치, 장조림, 소시지 부침 등을 직접 조리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정의 영양 부족이 우려되는 대상자들에게 반찬을 배달하였다.

앞서 도암지사협은 지난 6월 각 마을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중 30명을 확정하고 매월 1회 정기적인 반찬 지원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도암면에는 370여 명의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그 중 260명이 돌봄, 요양보호, 장

하루 전부터 필요한 부식재료를 구입하여 준비하는 한편 관내 여성자원봉사단체 회원들에게 동참을 권유하는 등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도암면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 등 단체 소속 회원 10명이 이날의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었다.

한편 도암면에는 370여 명의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그 중 260명이 돌봄, 요양보호, 장

애인 활동보조, 보호자 등의 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 110여 명의 노인 및 장애인은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암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아침 안부전화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가구를 선정해 지사협과 협력하여 매월 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찬 만들기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신기마을 김학자씨는 “도암지사협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항상 돕고 싶은 맘을 갖고 있었는데 기회가 되어 이번에 함께 참여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 같아 정말 보람되고 뿌듯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화순군,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내달 31일까지 위기 상황 우려 취약가구 대상

복지 네트워크 강화해 선정 후 최대 1년 지원

화순군이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무더위로 냉방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근로가 어려운 계절적 특성으로 취약계층이 위기에 노출될 위험 요인이 많아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 기간에 취약계층 상시 모

니터링한다.

중점 발굴 대상자는 의료 위기가구, 경제적 고위험군 1인 가구, 단전, 가스 차단,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가구,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 질병·장애 등 돌봄 부담 과중 가구,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고립 등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취약가구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담당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0명, 복지이장 345명, 복지부녀회장 331명, 복지기동대 129명 등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발굴한 위기가구는 위기상황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을 연계하거나 후원금과 불품 등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주거 환경개선 또는 돌봄, 주거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약 3개월에서 1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발굴 기간에는 읍·면 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의 도배, 장판 교체, 전기, 가스 설비, 수도 보일러 수리 등 간단한 생활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질병, 재난, 실직 등 위기가 발생하면 생활 안정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에 위기에 놓인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관심을 두고 살펴봐 달라”며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379-3941~3945)이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한부모 가정 빈곤율 12배 ↑

“자녀 혼자 있는 시간도 길어”

한부모 가구 평균 소득이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한부모의 육아부담 및 자녀돌봄부담도 규정 마련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으로 양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93만원인데 비해 한부모 가구는 35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구의 소득이 양부모가구 소득의 51%에 불과한 셈이다.

빈곤율도 한부모 가족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양부모 가족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 한부모·조손 가족 상대적 빈곤율은 46.6%로 조사됐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특히 한부모들의 장시간 근로 비율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상당히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2017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3시간과 비교할 때 훨씬 긴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양부모 가정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을 보면 1시간 미만 50.9%, 1~2시간 정도 32.2%, 3~4시간 정도 13.3%, 4시간 이상 3.6%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 가정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미만 30.3%, 1~2시간 정도 26.5%, 3~4시간 31.7%, 4시간 이상 11.5% 등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배우자에 의한 대체 수입과 자녀 돌봄을 분담할 수 없는 만큼 경제적 빈곤에 처할 우려도 훨씬 더 높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광해관리공단 “저소득층 연탄

쿠폰 이달까지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가구 대상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2019년 연탄쿠폰을 오는 31일 신청 마감한다.

저소득층 가구는 연탄 가격 인상액에 대한 차액만큼을 쿠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다.

소외계층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 부모 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

정하는 장애인이 해당한다.

광해관리공단은 중복수급 및 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연탄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강대문 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장은 “연탄쿠폰 대상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방문 접수, 대리 신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수혜자 중심의 사업 실시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세상 속으로 소풍 가요”

영암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관의

여행을 통해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